

▶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가을을 여는 국악콘서트, 락'

전북도립국악원 '가을을 여는 국악콘서트, 락'에 출연하는 '바라지' 팀이 무대에서 연주하고 있는 모습.



생명의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의 설렘

전라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 관현악단은 30일 오후 7시 30분 국립무형유산원 열쭉마루 대공연장 무대에 '가을을 여는 국악콘서트, 락'을 올린다.

생명의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의 설렘을 담아낸 이번 공연은 전라북도립국악원과 국립무형유산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문화가 있는 날, 교류공연'이다. 지난 계절의 추억을 음미하는 연주곡 '봄을 그리다'를 시작으로 국악가요, 판소리, 해금, 타악의 협연무대가 잇따른다.

국악관현악 '봄을 그리다'는 다양한 소성의 몸짓과 따뜻함, 생동감을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연주된다.

국악가요 '님 그리는 춘향' '뽕-story'는 전통 판소리를 현대적 어법으로 재해석한 곡. 춘향의 애절한 마음과 물질만능주의를 풍자하는 가사가 매력적인 곡으로, 판소리 적

시작곡 '봄을 그리다' 지난 계절의 추억 음미

'님 그리는 춘향' '뽕-story' 전통 판소리 현대적 어법 재해석

'무취타', 인간의 희로애락을 타악 리듬으로 표현

공연은 30일 국립무형유산원서

벽가 이수자 이용선과 협연무대로 선보인다.

창과 관현악 '흥부가' 박태는 대목'은 민중의 해학이 가득 담긴 판소리 '흥보가'의 백미 중 한 대목. 남원춘향제 대통령상 수상자인 김세미 창극단 수석단원이 국악

관현악 반주에 맞춰 들려준다.

해금협주곡 '공수반이'는 경기음악의 선율을 해금의 뛰어난 기교로 풀어내는 곡으로 굿거리-세마치-자진모리로 진행되는 화려한 선율이 돋보인다. 이동훈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가 해금 연주를 맡았다.

마지막 곡 '무취타'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타악 리듬과 태평소 선율로 표현한 곡이다. KBS 국악대상 단채상을 수상한 '바라지'가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이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 당일 현장장을 방문하면 1시간 전(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통주 주세, 지방세로 전환하자'

전주전통술박물관-전통주협동조합, 내일 정책 토론회 개최
지방세 전환문제 · 정부 전통주 육성 지원사업 등 논의

전주전통술박물관(관장 박일두)과 전주전통주협동조합은 전통주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전통주 주세,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물관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전통주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련하고, 전통주와 지역토속주의 지방세 전환문제 및 정부의 전통주 육성 지원사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일두 관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완배 서울대 농생명대 교수가 발제자

로 참가한다. 김태영 농촌진흥청박사, 김지원 외인생산자협회장, 이영춘 전통민속주협회장, 김홍우 전통주진흥협회 회장, 이민형 감홍로 대표가 토론에 나선다.

전주전통술박물관은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전통주의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통주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며 "전통주 주세가 전체 주세의 0.04%를 차지하고 있는 통계 수치는 전통주 산업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말해 준다면서 무엇보다도 정책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군산시 생문동 페스티벌 성료

일상 속 생활과 문화,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의 장(場)이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6회 군산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하 생문동) 페스티벌 B+생문동, 더 나은 일상을 위한 선택'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은파호수공원 불빛다리광장에서 펼쳐졌다.

군산시생문동은 총 8개 지부, 150개 단체, 27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동호회 네트워크로서 이번 페스티벌은 51개의 팀에서 600여명이 참여해 자신들의 기량을 뽐냈다.

25일 공연을 시작으로, 26일 토요일에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무료사진촬영 및 인화,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과 국악기체험 등으로 재미를 더했으며, 마지막 날인 27일 일요일에는 통기타 동호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기타 열연을 선사했다.

신앙회 군산생문동 회장은 "앞으로도 우리의 동호회 활동이 참여자들의 일상에서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산=김관곤 기자



음식과 삶의 이야기 국악과 함께 즐기기

▶ 국립민속국악원 '다담' 고광자 하늘모듬이 대표 초대

우리 음악 즐기기 시간에
퓨전국악단 소리에 출연
내일 예음헌서 무대

국립민속국악원은 30일 오전 11시 예음헌에서 열리는 국악콘서트 '다담'에 하늘모듬이 고광자 대표를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해 음식과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 고광자 대표는 10여 년 전 남원시 산동면 상신마을로 귀농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전통적인 방법으로 장을 담그며 로컬푸드 식품 개발 등 식문화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대표는 상신마을 어르신들이 농사지은 콩과 고추 등의 농산물만으로 장을 담그는가 하면, 음악회나 작은 축제를 갖는 등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기도 하며 삶을 풍요롭게 가꾼다.

현재 남원시여성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요리하는 남자'를 이끌며, '발효식품' '로컬푸드' '귀농 귀촌' 등을 주제로 다양한 강의 활동도 하고 있다.

고 대표는 이날 다담에서 귀농의 성공 노하우와 몸 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그리고 '우리 음악 즐기기' 시간에는 도내를 기반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퓨전국악실내악단 소리에(Sori)가 출연해서, '라몬제나' '하울의 움직이는 섬' '새야 새야 '한오백년', '수궁연'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2011년 창단한 소리에(Sori)는 전주국제영화제·전주대사슴놀이·전주세계소리축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전라북도에서 100회 이상의 공연을 하며 편안하고 즐거운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스토리텔링 음악이 담긴 '전주전 설화-각시바위'와 신수궁가 '소리에, 용궁을 엿보다' 등 2개의 음반을 발매했다.

한편 장터사진가 정영신, 퓨전국악그룹 그림(The 林) 함께 하는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 9월의 다담 프로그램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에서 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소리에

'노래로 들려주는 클래식', 내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

테너 박상현, 소프라노 하나린과 함께하는 '노래로 들려주는 클래식' 공연이 김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오는 8월 30일 오후 7시 30분 세계 여러나라 유명 가곡을 우리 귀에 익숙한 클래식 음악으로 선곡하여 가을이 다가오는 문턱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문화예술의 창의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문화예술을 온 국민과 더불어 누리하고자 북관기금의 지원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권을 신장시킴은 물론 문화예술 발전의 밑거름인 지역 문화예술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인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예회관 기획공연이다.

공연에는 서울대학교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모스틀리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인 테너 박상현과, 숙명여대 성악과 졸업 소프라노 하나린 등이 출연하여 클래식 음악으로 삶의 여유로운 추억의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